

# 배박물관 실감콘텐츠관 구축...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착수  
재배 과정 체험 11월까지 구축  
인공수분·수확·가지치기 과정  
배 생애·역사 등 내용 구성 심혈

나주배박물관에 실감콘텐츠관이 들어서면서 20년만에 리모델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착수 보고회를 갖고 지역 특산품인 배를 활용해 역사·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청 이화실에서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나주배박물관 나주배 실감콘텐츠관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이날 보고회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홍성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장, 서재홍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단장, 권상준 우리한국배연구회장, 김귀순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서주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공무원과 사업 수행업체(이지, 유오케이)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나주배의 역사와 재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전남도내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올해 1월 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나주배박물관 2층 전시실에 나주배의 1년의 재배과정을 실감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실감콘텐츠관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실감콘텐츠관이 구축되면 배과수원에 가지 않고도 영상 터치만으로 1년간의 나주배 농사(인공수분, 열매숙기, 봉지씌우기, 수확, 가지치기 등)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소요 시간은 10분 남짓 예상된다.

나주시는 실감콘텐츠관을 통해 나주배 박물관이 교육, 역사, 문화, 체험, 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992년 개관한 나주배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과일박물관으로 일본 구라요시의 20세기배박물관이 나주배박물관을 보고 건립했을 정도로 뜻깊은 곳이다"며 "배의 전체 생애와 역사, 품종 등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물, 왕건이 탐낸 쌀 20% 할인 판매... 무료배송도

나주시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물'에서 오는 31일까지 '왕건이 탐낸 쌀'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기념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은 전남도가 우리 쌀 판매 활성화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이 품질, 안전성, 식미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왕건이탐낸쌀'은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한 청무살로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3758톤을 생산, 53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지난해 210억원을 투입한 최신식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서 생산하

는 최고 품질의 브랜드 쌀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는 '왕건이 탐낸 쌀'이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되면서 특판행사를 마련했다. 7월 한 달간 정사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맛과 우수성이 입증된 '왕건이 탐낸 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판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주쌀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5월 뉴질랜드·호주 수출업체와 1000톤 규모의 나주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새청무살 41톤을 뉴질랜드로 수출했으며 하반기에는 호주로도 수출할 계획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시, 캠프닉 야시장 '너랑 나랑 밤소풍' 개최

### 매주 토요일 목사고을시장서

나주 대표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나주시는 캠프닉(캠핑+피크닉)을 콘셉트로 한 야시장 프로그램 '너랑 나랑 밤소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너랑 나랑 밤소풍'은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야시장 특별 이벤트로 오는 10월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야시장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돼있어 취향에 따라 즐기면 된다.

삼삼오오 모여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BBQ존과 시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미리 설치돼있는 텐트에서 캠핑하는 느낌으

로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 개인 장비를 직접 설치해 즐기는 캠프닉존으로 구성돼있다.

편하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불판 세트(버너, 불판, 집게, 가위)를 유상 대여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 품목 외에 토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먹거리들도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먹거리는 각 테이블에 준비된 메뉴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시장은 날짜가 4일과 9일로 끝나는 장날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우천 시에도 취소될 수 있다.

상세한 일정은 나주목사고을시장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naju\\_moksagoeulmarket](https://www.instagram.com/naju_moksagoeulmar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

나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당초 2월에 공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자의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춰 하반기인 7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재 임차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모바일 지급이 원칙이나 불가 시 지류도 가능하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봉황면 주민자치위원회, 봉황농협 등 관계자들이 최근 노후화된 건물 외벽을 청소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봉황면 주민자치위, 외벽 청소·도색 등 마을 환경 정비

나주시 봉황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상근)가 봉황면을 다시 활기찬 마을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봉황농협, 봉황경찰서 임직원 등 30여명이 노후화된 건물 외벽 청소와 페인트칠로 봉황면

이미지를 새롭게 다졌다.

한때 번성했던 봉황면 소재지권 상권은 농촌 인구 감소로 빈 상가가 늘고 건물이 노후화된 실정이다

이날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마을가꾸기 활동은 400여 m에 이르는 상가 외벽 청소와 페인트칠, 도로변 정비, 경관

조성 활동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봉황으로 거듭났다.

양상근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소재지권 환경정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방문객들이 쾌적함과 편안함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지속해서 봉황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국회 건의

###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방문해 민선 8기 비전인 미래첨단산업 활성화를 좌우할 과학·기술분야 핵심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간사를 만나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국가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현안 사업별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겸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동석해 힘을 보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에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으며 현재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그간 전남도 지역엔 전문 과학관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미래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교육·체험할 수 있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최민희 과방위원에게 과학 기술 분야 핵심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는 과학관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광주·전남 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 과학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에너지 공기업·교육기관·연구소 등과 연계한 복합 과학·문화 공간으로 에너지 수도 나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주요 선진

국에서 앞다퉀 기술개발 중이다.

윤 시장이 이날 건의하고 시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공을 들여온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발전소 개념이 아닌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발전)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시설이다.

나주시는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지난 2022년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